

프랑스 : 청년 세대가 처한 노동시장 진출의 어려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프랑스

이두형 (프랑스 루미에르 리옹2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임기 내 실업률을 5% 이내로 낮추며 ‘완전고용’ 실현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마크롱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고용지원 및 실업 정책의 핵심 운영기관을 ‘프랑스 고용센터(Pôle emploi)’에서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로 개편하며 대대적인 손질을 가했다. 또한 ‘노동연대수당(RSA)’ 등 저소득 및 사회적 약자 계층에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정책과 고용지원 정책의 연동을 강화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섰다. 그 외에도 실업보험 수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구직 활동과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국제정세와 여소야대 국면에서 연이은 총리 사퇴를 비롯한 정국 경색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프랑스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에 따라 마크롱 정부가 내세운 임기 내 완전고용 달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실업과 관련하여 오늘날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부각되는 현안 중 하나는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출이다. 다시 말해 청년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은 물론, 그중 상당수가 노동시장 진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프랑스 통계청(Insee)이 1950년 이후 처음으로 추가한 질문에서도 드러난다. 약 1,600만 명에 달하는 15~34세를 대상으로 학업 중단 및 현재 노동 상태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¹⁾

1) Franceinfo, “Abandonner ses études, une situation rarement payante sur le marché du

이 글은 프랑스 사회에서 노동과 관련해 점점 더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출과 실업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 통계청을 비롯한 관련 분석 자료와 통계 자료 등을 통해 프랑스 청년 세대가 처한 상황과 이를 둘러싼 맥락들을 중심으로 한다.

■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

실제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다른 연령군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15~24세 실업률은 전 분기 대비 2.4%p 증가하며 21.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4분기와 비교해도 2.8%p 더 높은 수치다. 연령대를 확대하여 15~29세로 봤을 경우에는 전분기보다는 0.5%p,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는 1.7%p 높은 16%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 그렇지만 25~49세 실업률은 앞선 3분기 대비 0.2%p 증가하고,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는 0.3%p 떨어진 6.9%로 추산됐고, 50세 이상의 실업률은 5.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젊은 세대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통계를 보면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늘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5~29세 세대와 가장 주요한 경제활동인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49세 세대를 비교하면 전반적인 실업률 증감 경향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실업률 수치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1980년부터 2023년까지 실업률 추이를 보면 항상 젊은 세대가 더 높은 실업률을 보였으며, 시기별로 두 세대의 실업률의 차이는 달라졌지만 크게는 10%p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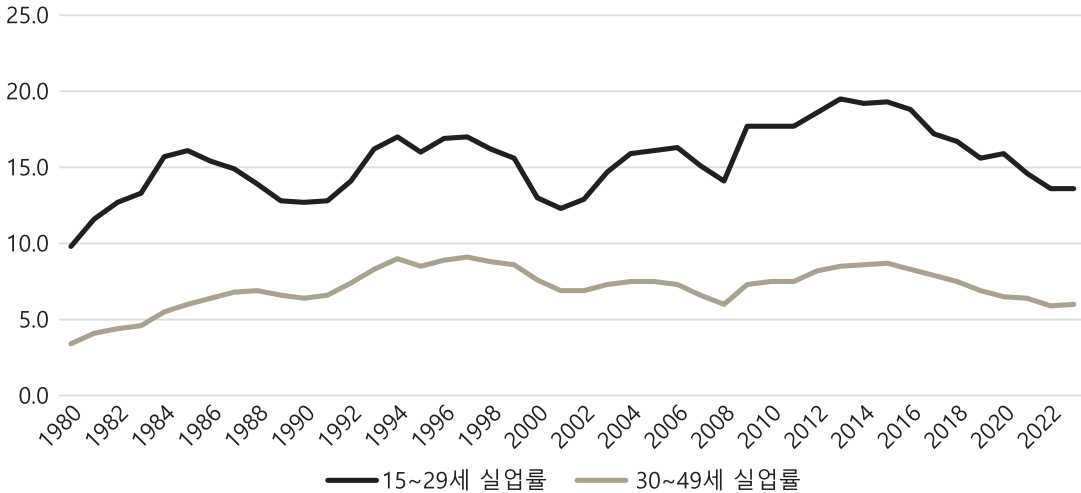
이처럼 젊은 세대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지목된다. 하나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젊은 세대를 나이에 따라 더 세밀하게 분류하였을 때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2023년도 기준 15~24세의 실업률은 17%, 25~29세 실업률은 10%로 7%p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낮은 학력으로 인해 15~24세 인구가 25~29세 인구보다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ravail”, 2026.2.22.

2) Insee(2026), “Au quatrième trimestre 2025, le taux de chômage atteint 7,9%, en hausse de 0,2 point sur le trimestre et de 0,6 point sur un an”, <https://www.insee.fr/> (2026.3.18).

3) Insee(2025), “Formations et emploi : Édition 2025”, <https://www.insee.fr/> (2026.3.18).

[그림 1] 1980~2023년 15~29세 실업률과 30~49세 실업률 추이



자료 : Insee(2026), “Formations et emploi : Édition 2025”, <https://www.insee.fr/> (2026.3.18).

실제 프랑스 통계청이 2025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으로 학업을 마친 후 1~4년 사이의 취업률은 고등교육 이수자의 경우 85%를 기록했다. 반면 일종의 특성화 고등학교나 직업교육 수료자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67%, 고등학교 학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33%로 그 비중이 확연히 떨어졌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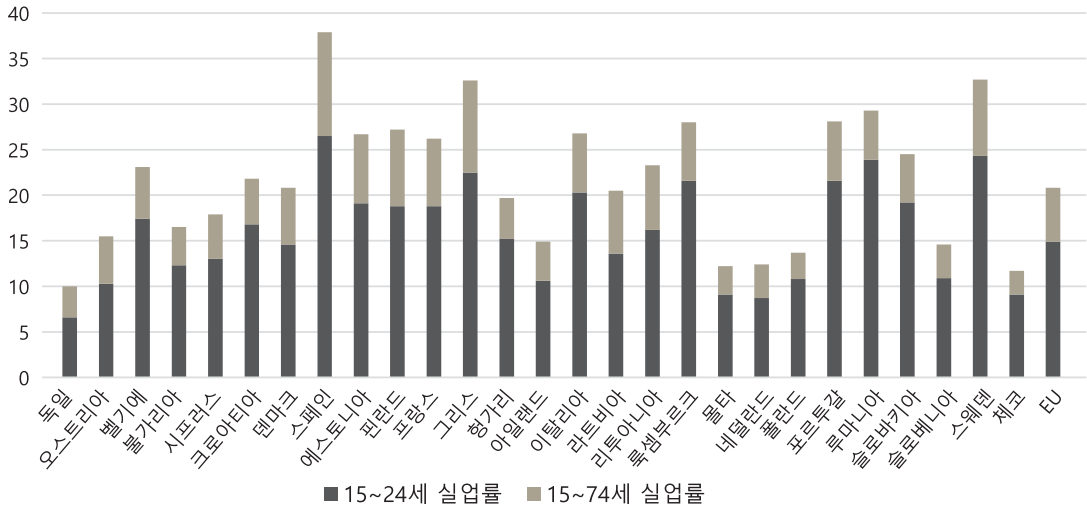
또 다른 원인으로 청년 세대는 노동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짧다는 것, 다시 말해 노동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 세대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일종의 업무 경험 및 경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보다 길고 많은 업무 경험을 갖고 있는 다른 세대보다 노동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 능력과 부족한 경험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되면서 실업률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15~29세 젊은 세대일수록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기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⁵⁾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4년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15~24세 평균 실업률과 15~74세 평균 실업률을 보면 각각 14.9%

4) Le Monde, “Le chômage des jeunes, un fléau français”, 2026.3.6.

5) Insee(2025), “Formations et emploi : Édition 2025”, <https://www.insee.fr/> (2026.3.18).

[그림 2] 2024년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15~24세 및 15~74세 실업률



자료 : Insee(2025), "Emploi, chômage, revenus du travail : Édition 2025", <https://www.insee.fr/> (2026.3.18).

와 5.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의 15~24세 실업률은 18.8%로 유럽연합 평균보다 약 4%p 높았으며, 15~74세 실업률은 7.4%로 유럽연합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그 격차는 1.5%p였다. 청년 실업률은 유럽연합 내에서는 스페인이 26.5%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24.3%, 루마니아 23.9%, 그리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이 20%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며 프랑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 18.8%는 독일 6.6%, 네덜란드 8.7%, 등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며, 벨기에 17.4%보다도 청년 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 학업 중단과 전공 변경

프랑스 통계청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학업 경로와 현재 취업 상태 등에 대해 조사했다는 사실은 청년 구직과 실업 등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접

6) Insee(2025), "Emploi, chômage, revenus du travail : Édition 2025", <https://www.insee.fr/> (2026.3.18).

근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15~34세 인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를 보면 이들 중 20%는 처음 시작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 평균 14%보다 높은 수치이며 루마니아, 그리스, 불가리아 등이 4% 미만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학업 중단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네덜란드에서는 32%를 기록하기도 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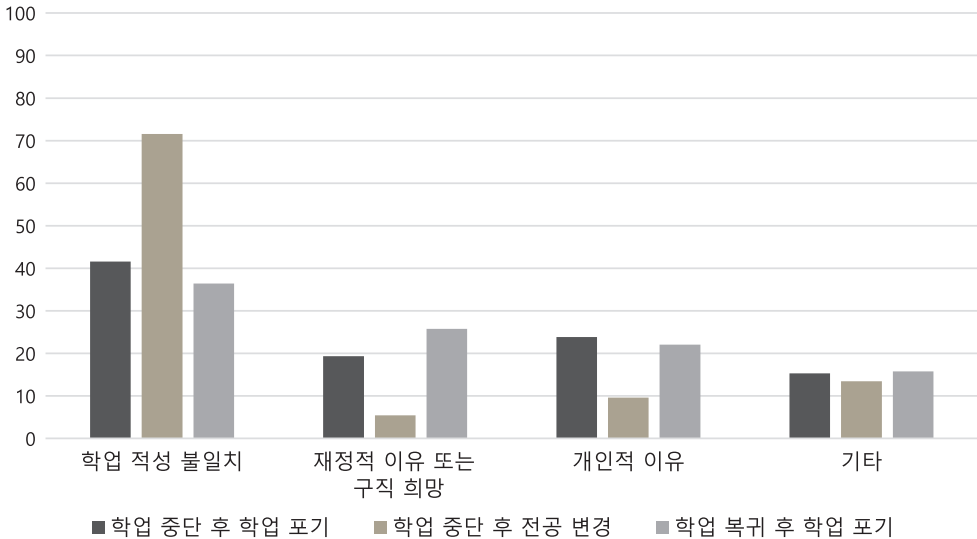
학업 중단 사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학업 중단의 3분의 1이 중등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정해진 방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무교육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새롭게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짐에 따라 오히려 완전한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칼로레아 취득 전, 즉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기 전 학업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는 67%에 달했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 후에는 그 수준이 45%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학업 중단의 대부분은 졸업 연도에 나타나는데, 학기 도중이거나 또는 시험에서 낙제하는 경우 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학업 포기 10건 중 8건, 전공 변경 10건 중 7건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학사 3학년에는 25%, 고등학교 졸업 연도에는 14%(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9%), 2년제 직업 고등교육 과정인 BTS(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에서는 12%가 졸업 연도 시기에 이루어진다. 졸업 연도가 아닌 경우의 전공 변경은 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 후 첫해에 이뤄지는데, 보다 높은 학위를 준비하는 시기에 맞춰서 약 20%가 전공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포기와 전공 변경을 결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두 사례 사이에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난다. 전공을 바꾸기 위해 기존의 학업을 중단한 경우의 72%는 현재 학업과 자신의 기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와 같은 이유로 학업을 포기한 경우는 42%에 불과했다. 건강 문제와 가족 이유 등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포기한 경우는 24%에 달했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이러한 이유로 학업을 포기한 경우는 33%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이유로 전공을 변경한 비중은 10%에 그쳤다. 처음 시작한 학업을 마친 후 다른 전공을 배우는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재정적인 이유와 노동시장 진출이 26%로 상대적으로

7) Insee(2026), "L'insertion sur le marché du travail plus difficile après un arrêt des études en cours de formation", <https://www.insee.fr/> (2026.3.18).

[그림 3] 사례별 학업 포기 이유



자료: Insee(2026), "L'insertion sur le marché du travail plus difficile après un arrêt des études en cours de formation", <https://www.insee.fr/> (2026.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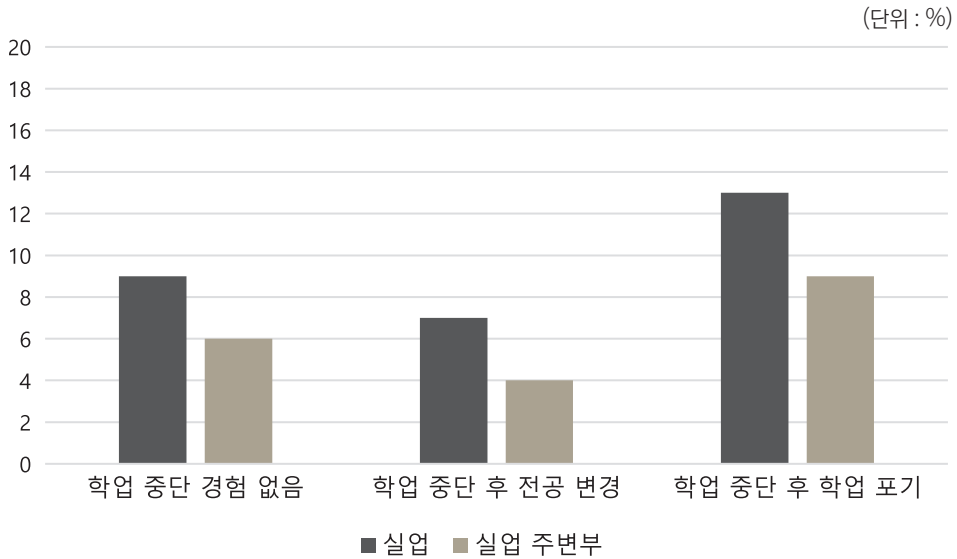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이때 전공에 따른 기대감 불충족을 이유로 포기한 경우는 36%로 다른 학업 포기 또는 전공 변경 사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학업 중단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24년도 기준으로 학업을 포기한 청년 중 23%가 실업자이거나 사실상 실업 상태인 실업 주변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업을 중단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15%, 처음 학업을 중단하고 전공을 변경한 경우에는 11%가 실업 또는 실업 주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사례에 따른 학력 수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 시점에서 장기간의 고등교육 학력을 보유한 경우는 학업을 포기한 경우 11%에 불과했지만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36%, 전공 변경을 했던 경우에는 54%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학력 수준이나 노동시장 진출 경험, 사회적 출신 및 성별 등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도 학업을 중단하고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실업 혹은 실업 주변부에 놓일 가능성이 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계 진로와 관련해서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일자리를 얻는 데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공을 변경한 경우가 학업을 포기한 경우보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놓

[그림 4] 학업 중단 유무에 따른 실업 및 실업 주변부 비율



자료: Insee(2026), “L’insertion sur le marché du travail plus difficile après un arrêt des études en cours de formation”, <https://www.insee.fr/> (2026.3.18).

이는 것은 학력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전공 변경 이전보다 높은 학위를 갖고 있는 경우는 36%였으며 동일한 수준인 경우는 38%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전공을 변경한 경우와 변경하지 않고 처음의 전공을 이어간 경우에서 실업이나 실업 주변부로 놓일 확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 세대의 학업 중단 경험 유무가 실업 또는 실업 주변부로 내몰리는 것은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을 넘어 일자리를 얻은 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업을 중단했던 젊은 세대의 경우 고용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간제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20%에 달했으나, 학업을 중단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14%에 그쳤다. 또 학업 중단자 중 9%는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어함에도 기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나, 학업을 지속했던 경우에는 그 비중이 5%로 낮았다. 또 학업을 포기했던 경우 간부직 비중이 8%에 그친 반면, 학업을 이어갔던 경우에는 24%로 약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포기자의 경우 주로 상업과 운송, 숙박 및 요식업 등 서비스직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공을 변경하면서 높은 학력 수준을 보유한 경우, 학업을 중단한 적이 없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학력과 사회적 조건이 같을 시, 전공을 바꾼 경험이 있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간부직에 있을 확률이 3분의 1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선택한 전공이나 분야가 갖는 특성에 따른 결과이거나 또는 전공을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프랑스 정부에서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현안으로, 특히 청년 실업이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최대 고용자단체인 프랑스산업연맹(Medef)은 계약 초기 몇 년 동안에는 특정한 사유가 없이 고용 해지가 가능한 일명 ‘청년 무기 노동계약직(CDI Jeune)’ 도입을 제안하며 이것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⁸⁾ 일정 기간 동안 해고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피고용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직무 교육 의무화와 적절한 직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습기간 연장 등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하면 청년 실업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⁹⁾ 그러나 노조 측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은 물론, 정부 측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경영자 측에서도 청년 실업 해소를 내세우며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안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다.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학업 중단 유무와 그에 따른 고용 상태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통계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그러한 사회적 관심을 방증한다. 이는 현재 프랑스 청년의 실업 문제에 대한 세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그에 맞는 대응책 강구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필요한 작업이며,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계층의 노동 및 고용 환경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KCLL**

8) Franceinfo, “Emploi des jeunes : le Medef propose un CDI pouvant être rompu plus facilement”, 2026.1.31.

9) Le Figaro, “«Nouveau CPE déguisé», smic adapté... Les propositions choc du Medef pour l’emploi des jeunes provoquent une levée de boucliers”, 2026.2.2.